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스마트 강의실 선보여

2009년 11월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을 위시한 다양한 스마트기기가 대중화되었다. 지금은 대다수의 대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의 풍경까지 바꾸어 놓았다. 스마트폰 중독과 자라목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생겼고,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스마트기기의 발달은 교육현장의 풍경도 바꾸었다.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강의실에 가지고 들어온다. 교수님의 판서(板書)를 노트에 옮겨 적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찍어 저장하고, 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복습에 활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 ● ●
김진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팀장

스마트 강의실의 필요성

하지만 학생들의 복습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활용이 스마트기기 교육적 활용의 전부는 아니다. 기술 환경의 발전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누구나,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라도 세계의 우수한 강의를 자신의 스마트기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 대학은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목표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제반 환경을 개선하며, 이를 교육에 활용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우수한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지식 나눔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 및 기의 보급 수준은 대면교육의 보조적·도구적 방식의 접근으로 스마트 러닝을 바라보는 것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 러닝은 그 자체적으로 실제적인 수업 현장에서의 무궁무진한 활용과 다양한 형태의 확산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다양한 강의실 환경개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하여 스마트 러닝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전공 영역 및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사례를 발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이패드 안 가져오셨어요?”

2013학년도 2학기 적용을 목표로 하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스마트 강의실 구축은 크게 기의 보급과 강의실의 환경 개선, 교육적 활용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1개 강의실의 수강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약 40여 대의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강의시간에 수강생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아이패드의 활용법을 배우는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패드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새로 구축되는 스마트 강의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이패드의 활용에 최적화된 강의실 환경을 위해서 노트북, 데스크톱, 아이패드를 빔프로젝터에 같이 사용하기 위한 분배기, 아이패드의 음향 출력을 위한 오디오 환경, 애플TV와 아이패드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설치된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내에 구축될 스마트 강의실은 새로운 교육방법에 관심이 있는 교수자가 직접 강의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신이 배정받은 강의실에서 아이패드만 대여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스마트 러닝을 위한 교육으로는 아이패드의 기본적 활용법은 물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전공교육에 있어서의 활용에 대한 컨설팅, 우수한 이용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러닝을 통한 지식 나눔

이번에 구축되는 스마트 강의실은 단발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을 통하여 선진 교수법을 발굴하고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로 다른 전공 영역, 교수방법에 따른 다양한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운영 결과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교수법과 스마트러닝 구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의 스마트 강의실 확산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이동성, 즉시성을 갖추고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의 장점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강의실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우리 대학의 강의실 환경 개선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강의 콘텐츠 제작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이패드는 콘텐츠 제작이 유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고 있으며, 디바이스 특성상 카메라 촬영과 녹음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교실 현장에서 즉각적인 강의 콘텐츠 제작과 학생 발표 영상 제작 등이 매우 용이하다. 작성된 콘텐츠는 무들 시스템과의 과목 연동을 통해 디바이스 내에서 즉시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과목 내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 구축되는 스마트 강의실은 서울대의 사명 중 하나인 지식 나눔에 필요한 콘텐츠 확보, 강의공개시스템 콘텐츠로서의 활용과 유통에 활발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브라임 학습공동체〉 운영 보고

이희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교수

○ 서브라임 학습공동체란?

서브라임 학습공동체는 서울대학교 기회균형특별전형(농어촌특별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등)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서울대학에서의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대학공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기회균형특별전형 입학생들은 전형의 특성상 고교 선배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혼자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삶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울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보여준 숭고한 노력을 칭찬하고, 앞으로 서울대학에서의 대학생활의 적응과 대학공부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서브라임’이라는 단어는 ‘아래서’를 의미하는 라틴어 전치사 sub와 ‘문지방’을 의미하는 라틴어 명사 limen으로 구성된다. 획기적이며 창조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인 ‘서브라임’은 철학적인 개념으로 ‘신체적, 도덕적, 철학적, 영적, 그리고 예술적’인 위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원을 기원으로 하는 ‘서브라임’을 본 프로그램으로 명명하고 이들이 서울대학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전공 진입 이전 학과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신입생 1년 동안 같은 전형을 입학한 학생들과 선배 멘토, 리더 선생님께서 구성된 학습공동체에 소속되어 함께 공부하며 자신의 학업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였다.